

천마 활용 식품 산업 경쟁력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무주군, 생산 유통 가공 기반 구축·마케팅 활동 등 '천마클러스터 3단계 사업' 추진

무주가 천마클러스터 3단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천마클러스터 사업은 무주군 특화 작목인 '천마'를 육성하고 이를 지역 전략 식품 산업으로 이끌어 간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무주군은 기능성 검증 및 효능효과 강화연구 등 20개 세부사업을 추진해 무주농업 발전과 참여농가 및 가공업체의 소득증대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총 89억 여 원이 투입되는 무주군 천마클러스터 3단계 사업은 (사)무주천마사업단이 주체가 돼 추진하며 오는 2025년까지 ▲사업단 및 운영협의회 구성·운영(혁신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기능성 검증 및 효능·효과 강화연구(생산·유통·가공 기반 구축), ▲천마 품질관리 강화와 덕덕, 인삼 등 품목연계를 통한 식품사업 영역 확장(생산·유통·가공 기반 구축), ▲통합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추진을 통한 인지도 확대(산업화 및 마케팅), ▲관광을 연계한 통합 체험프로그램 개발(체험관광 연계 활성화)에 주력하게 된다.

무주군에 따르면 혁신체계구축 및 네트워크 운영은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단 운영과 참여농가, 가공업체, 무주군 간 협력구조 마련을 위한 위원회 및 컨설팅 개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산업화 및 마케팅 활동을 위해 생산 및 유통·가공 기반구축을 위해서는 신규상품 개발 및 가공시설 지원, 생산 농가·가공업체 창업활성화 등을 지원한다.

산림화 및 마케팅 활동은 '천마'를 두뇌활동과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각인시키기 위해 천마 및 연계 품목을 활용한 외식업체 지원과 신규 유통채널 구축, 브랜드 통합 홍보로 진행한다.

또 도농교류 천마관련 식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관광지 연계 홍보행사 개최 등으로 체험관광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다.



무주군이 '무주천마 유통구조개선 및 신규 전략상품 개발' 사업을 통해 '천홍록' 등 총 18종의 상품을 개발했다.

무주군 농업정책과 이은창 과장은 "3단계에서는 1, 2단계에서 기반을 다져온 천마산업을 고도화시키는 사업들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다"며 "무주천마사업단과의 협업을 통해 완성도를 높이고 또 무주가 천마의 고장이라는 명성과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무주군은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동부권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 지원을 받아 '천마클러스터 사업'에 투자, 천마연구센터 건립과 지리표시제 확보, 천마상토개발, 기능성 식품 연구, 천마 가공품 개발, 가공시설 구축, 통합 홍보 등을 추진해왔으며 이들 사업을 통해 무주군은 천마상토개발 등 14건의 특허를 등록, 천마의 차별성을 각인시키며 시장을 확대했다. 최근에는 농업기술센터 기술연구과에서 시범농가를 통해 생산한 우량유성자마를 최초로 농가에 보급하는데 성공해 생산성 향상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의 '무주천마 유통구조개선 및 신규 전략상품 개발' 사업도 추진했다. 무주군은 이를 통해 '천홍록' 등 총 18종의 상품을 개발했으며 개별 상품 중심의 유통·홍보마케팅을 펼쳐 천마 인지도 및 활용 가능성을 높였다.

전라북도농업기술원과 천마산업

발전은 지속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 ICT 시설을 활용한 시설재배와 현장 수요 중심의 연구개발 사업도 공동으로 추진 중이다.

무주천마사업단 여환호 단장은 "무주천마의 자존심은 우리 손에서 나온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세계인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천마제품을 생산하는데 최선의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오는 2022년까지 '무주 특산품 천마 활용 연구개발'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원사업 공모 선정을 기반으로 무주군약초영농조합법인,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과도 '천마복합 처방을 활용한 뇌 인지기능 개선 및 기능성식품 소재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무주군의 천마 재배면적은 지난해 말 기준 62.7ha로, 327농가가 생산하는 천마량은 연간 300여 톤 정도로 이는 전국 생산량의 62%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다.

한편, 무주천마사업단(2009.~)은 무주천마 육성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전문 조직으로서 천마생산 및 유통·가공 기반구축, 브랜드화, 지립화를 위해 활동하며 무주천마 대중화와 상품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역사박물관,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진안군에서 운영하는 진안역사박물관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운영하는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6~8월 참가자를 모집한다.

프로그램은 지역의 공방이나 문화예술가 등이 강사로 참여하여 진안의 청정자연과 전통문화를 주제로 다양한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먼저 6월 프로그램은 6월 30일 오후 7시에 ZOOM(Zoom)을 활용한 온라인 수업으로 '박물관 매직스쿨'이 진행되며, 7월 프로그램으로는 7월 28일 오후 7시 박물관에서 '마크라메 만들기'가 운영된다. 또한 8월 25일 오후 7시

에는 '복 열쇠 고리 만들기'가 박물관에서 진행된다.

프로그램 예약 접수는 14일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진안군민 누구나 전화(063-430-8086)로 가능하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대면 프로그램은 선착순 10명으로 신청인원을 제한해 접수할 예정으로, 마스크 착용과 방문대상 작성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 진행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보건소(소장 이임욱)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건강관리사(산후조리도우미)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등 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 관리 및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진안군은 관내 건강관리사 인력 부족으로 산모들의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 해 건강관리사에게 1일 1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산모들이 원활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서비스 이용 시 드는 본인부담금의 90%를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하

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에서 150%이하 가구(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3인 가구 20만6,575원, 4인 가구 25만2,295원)로 확대해 임신부들의 서비스 이용이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보건소나 복지로 및 민원24 홈페이지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임욱 소장은 "이번 서비스 지원 확대로 출산가정의 산후조리 및 아이 돌봄에 도움을 주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진안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북도지사배 자전거대회 무주서 열려

2021년 전북도지사배 자전거대회가 13일 무주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속에서 성황리 진행됐다.

전북자전거연맹이 주최하고 도체육회가 후원한 이번 대회에는 각 시·군 자전거 동호인 등 200여명이 참가해 무주군을 비롯해 3개 지자체가 개최지 경합을 벌인 결과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유한 무주군으로 지난날 25일 최종 결정됐다.

전북자전거연맹이 주최하고 도체육회가 후원한 이번 대회에는 각 시·군 자전거 동호인 등 200여명이 참가해 무주군을 비롯해 3개 지자체가 개최지 경합을 벌인 결과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유한 무주군으로 지난날 25일 최종 결정됐다.

대회는 오전 8시 30분 무주구룡동 주차장을 출발해 리조트삼거리~라제통문 삼거리~무풍덕지 삼거리~상오정삼거리 등을 거쳐 구룡동 주차장에 도

차하는 39.8km 구간을 달렸다.

특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개·폐회식을 생략했으며, 대회 당일 구룡동 주차장에서 발열체크와 방역소독 등에도 철저를 기했다.

군은 자전거 대회전날까지 참가 선수·방역수칙(마스크 착용, 손 씻기, 생활 속 거리두기, 발열 등 증상 증세 시 대회 참가 불가 등)을 담은 내용을 문자로 공유했다.

군은 앞서 안전한 대회 운영을 위해 지난 1일부터 교통 유도요원에 대한 안전교육과 성공적인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코스 답사를 하는 등 완벽 준비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됐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의회 김종문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원안가결

장수군의회 김종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제 326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런 의원발의 조례는 '장수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장수군 가족분노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총 2건으로, '장수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코로나19등 각종 재난 상황 발생 시, 최소한의 사회적응 유지를 위해 근무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

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또한 같이 의결된 '장수군 가족분노 지원순환 활성화 조례'는 관내 발생하는 가족분노의 원활한 처리와 가족분노 지원화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과 협의위원회 구성의 근거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종문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서로 힘들게 근무하는 관내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추후 조례와 연계한 다양한 사업추진으로 군민의 행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 통

장수군,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

장수군은 농지행정을 위한 공적 장부의 기능을 확립하기 위해 2021년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군은 이번 일제정비를 위해 읍·면별 정비반을 편성하고 읍면별 조사인력 업무보조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완료했다.

정비대상은 3만1,000여건으로 토지대장과 농업경영체정보 등을 비교 분석해 소유권 및 경작 변동으로 인한 불일치 등을 점검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을 연말까지 일제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군은 특히 일제정비에서 농지의 소유 및 임대차 정보를 중점 점검하고 불법임대차 의심되는 농지 소유자에게 임대수탁 안내 통보서 발송을 통해 농지의 행을 통한 임대차 계약을 홍보해 농지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치유·힐링 프로젝트 여행 토닥토닥 IN 진안 진행

진안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 (사)농어촌체험휴양마을 전북협의회가 연계해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 할 수 있는 프로젝트 여행 'IN 진안'을 지난 11~12일까지 진행했다.

프로그램은 치유와 힐링을 주제로 전북도 내 초등학교 5~6학년 가족을 대상으로 5팀을 모집했으며, 이를 통해 접수자가 초과될 만큼 큰 관심을 받았다.

진안군을 대표하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인 외사양마을과 상가막마을, 하가막마을의 대표 프로그램을 연계해 행사에 참여한 가족들에게 치유와 힐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획했다.

하가막마을에서는 울무떡만들기 체험을 시작으로 가마천 탐방, 울무비빔밥 식사 시간을 갖고, 상가막마을에서는 숲속 걷기 체험과 전통놀이체험을 진행했다. 외사양마을에서는 마이산 에코타운을 활용한 숙박과 음식, 라탄바구니만들기 등의 체험을 진행했으며 진안의 대표 관광지인 마이산과 탐사, 수선투 등을 둘러보며 진안의 아름다운 경치를 담아갈 수 있도록 구성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